



젊은 신문 아시아경제

특화된 콘텐츠로 승부한다!

매체에 드러나는 아시아경제신문의 역동성

하루에도 수십 명의 유명인사와 연예인이 방문하는 신문사 편집국이지만 데스크와 기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인물은 따로 있다. 정오를 조금 넘겨 그날의 완성된 신문을 배달하는 인쇄소 직원이다. 편집국에서 오전 내내 있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출근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전마감이 끝나는 11시까지 편집국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기자들은 전날 나온 기사에 대한 후속 기사와 새로 발굴한 아이템을 가지고 쓴 기사를 송고하고 데스크를 받는데 온신경이 곤두서 있다. 가끔 기사의 방향에 이견이 생긴 데스크와 출입기자들 간의 고성이나 오가기도 한다. 외부에서 본다면 '아수라장'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아시아경제신문이 가진 역동성이며 배달되는 신문은 그 증표인 것이

아시아경제신문은 정상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리뷰', 대중포털 '스투닷컴', 특화된 연예영화 웹진 '10아시아', 지방 경제특화 일간지 '광남일보', 세계 유수의 미래정보예측기관인 IHS글로벌인 사이트와 함께 하는 '아시아경제전략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미디어 시장의 최강자로 발전하고 있다. 역동성이 넘쳐나는 아시아경제신문을 찾아가 본다.

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도 숨가쁘긴 마찬가지다. 하루 평균 1,000여건에 달하는 기사가 쏟아져 가입자가 500만 명에 달하는 증권사 실시간 매매 프로그램(HTS)과 국내 주요 포털, 해외 언론사로 공급된다. 속보성 기사의 경우 매체 간 시간 경쟁이 치열하다. 단 몇 초 차이로 몇 십억 원이 오갈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기사들이기 때문이다.

젊음으로 성장하는 기업, 아시아경제신문

아시아경제신문은 젊다. 통합 이후 공채 9기를 채용한 아시아경제신문은 젊은 기운이 넘친다. 기자들의 평균 연령대 역시 20대, 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온오프라인 통합 경제신문으로 거듭난 지 햇수로 4년. 그동안 아시아경제신문은 온라인에



01 데스크 회의
 02 아시아경제신문 리셉션, 정재계 인사 축사
 03 아시아경제 기자들

서 경제신문분야 방문자 순위 1~2위, 페이지뷰 부동의 1위라는 성과를 거두며 급격히 성장했다. 젊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새로운 경제언론상을 창조하기 위한 변화

지난 2월 열린 총무로 사옥 이전 기념 리셉션은 아시아경제신문의 자신감을 확인하는 행사였다. 리셉션장에는 대통령의 축하메시지와 정운찬 총리의 영상 축사, 그리고 정계, 재계, 문화예술계의 VIP급 인사 6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아시아경제의 새로운 출발과 미래상을 확인했다. 이날 자리에서 아시아미디어그룹 임영

아시아미디어그룹 체육대회



욱 회장은 “신시대를 맞아 아시아경제신문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현장을 파고들어 독자들의 정보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뉴미디어시대에 맞는 특화 콘텐츠와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새로운 경제언론상을 창조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젊은 역동성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의 최강자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경제신문은 새로운 경제언론상을 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대대적인 지면 개편을 단행했다. ‘더알차게, 더깊이있게, 더폭넓게, 더재미있게’라는 4대 모토로 독자에게 한걸음 다가서며 기존의 살구색 신문용지를 엷은 미색 용지로 바꿨다. 지면 또한 기존의 28면에서 4면을 더 늘려 32면 체제로 구축하였다. 또한 아시아경제신문은 매주 월요일에 실리는 ‘알뜰살뜰 재테크’는 물론 금융, 증권, 부동산, 해외 재테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분야의 머니 정보를 전문가들의 치밀하고 정교한 분석과 함께 게재해 독자의 실천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아시아경제신문은 2010년 신사옥 개관을 계기로 ‘ACE 아시아, ACE 경제신문’이란 구호 아래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다. 고객(Audience)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창조적인 변화(Creative Change)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한국 경제(Economy)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언론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6